

대한적십자, 우크라이나에 13억원 규모 구호물자 지원

✎ 이승덕 기자 | ⓒ 승인 2022.03.15 17:04

우크라이나 및 인접국 피난민 위해 담요·방수포·위생물품 등 구입



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(Chernivtsi) 물류창고로 도착한 긴급구호 물품. 이탈리아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의약품, 식량, 응급처치키트와 기타 필수품을 우크라이나적십자사의 긴급대응 지원을 위해 전달하고 있다.

(사진출처: 국제적십자사연맹 shaRED 플랫폼)

[의학신문·일간보사=이승덕 기자]대한적십자사(회장 신희영)는 우크라이나 위기로 발생한 희생자와 피난민 구호를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(ICRC) 및 국제적십자사연맹(IFRC)과 협력하여 100만 스위스프랑(한화 약 13억원) 규모의 구호물자 지원을 실시한다.

대한적십자사는 10만 스위스프랑(한화 약 1억 3000만원) 규모의 1차 지원에 이어, 우크라이나 내 피해자들을 위한 식료품과 폴란드, 헝가리 등 인접 국가로 대피한 피난민들을 위한 담요, 방수포, 키친세트, 위생물품 등의 구호물자 구입을 위해 2차 긴급지원을 추진한 것이다.

UN 재해지역 인도주의 코디네이터(OCHA)에 따르면, 3월 12일 기준 지금까지 1600여 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고, 약 270만명의 피난민이 폴란드, 헝가리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등 우크라이나 내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.

특히, 대피시설, 긴급의료서비스, 의약품, 식수 등의 부족으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.

지난 3월 1일 국제적십자운동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스위스 프랑(한화 약 3250억원) 규모의 긴급호소를 발표했다. 이에 전 세계 각국 적십자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성금 모집을 시작했으며, 국제적십자위원회(ICRC), 국제적십자사연맹(IFRC), 전 세계 192개국 적십자사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 상황 지원을 위해 △피난처 지원 △식량·식수·구호물자 제공 △의료장비 및 의약품 보급 △피난민 등 긴급 의료지원 △이산가족찾기 등 인도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.

대한적십자 또한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희생자와 피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 한화 100억 원을 목표로 대국민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. 모금 시작 후 보름 만인 금일(15일) 오전 9시 기준 약 45억원(기부 약정 포함)이 모금됐다.

국내 각계각층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. 가수 나르샤, 의사 출신 사업가 김기천 닥터킴 대표 등 문화예술계 인사 및 개인 후원자와 아산사회복지재단, 남촌재단, 성주재단 등 공익재단법 인도 모금 캠페인에 동참했다. 또한, KG그룹, 대상, 포스코인터내셔널, 삼익악기, 에스더포물러 등 기업들도 참여해 큰 힘을 보태며 나눔 문화 확산을 이끌었다.

대한적십자는 현지 피해조사 및 국제적십자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.



이승덕 기자 sdpress@bosa.co.kr